

# 尹 “세계 최강국과 70년 동맹...미국에 고마워 해야”

## 국무회의의 16분간 방미 성과 설명

### 워싱턴 선언 안보동맹 업그레이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안보 구축 미래로 함께 전진하는 한미동맹 구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16분 길이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24~30일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50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이루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 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미국이 우리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야당 등에서 이번 미국 국빈방문 및 정상 회담을 놓고 ‘굴욕 외교’ ‘피주기 외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26일 백악관 한미 정상 회담을 비롯해 국빈 방미 성과를 일일이 열거했다.

먼저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5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을 두고서는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핵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언급했다.

이어 “양국이 첨단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R&D(연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 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스턴에서 하버드대와 MIT를 방문했던 일을 상기하며 “자유와 정진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이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과학기술이 나올 수 없다”며 “이번 방미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은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서 양국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들을 두루 만난 것과 관련, “이들에게 한국의 시장은 전세계 시장과 단일화하겠다, 얼마나 투자해달라고 얘기했다. 또 한국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발견되면 전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인적교류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 “양국이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이공계(STEM)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 한미 양국이 6천만 달러의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청년 학생들의 교류가 많아지면 이 기금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한미의회 외교’ 국회 방미단 6월초 대통령 전용기 이용할 듯

### 정부 예비비 활용 비용 문제 해결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의 오는 6월 한미 의회 외교를 위한 미국 방문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투입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월 초 김 의장과 여야 의원 50여 명의 방미 때 공군 1호기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의장 및 의원들의 공군 1호기 탑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김 의장과 만찬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다. 다만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국회와 정부가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활용을 요청해 1호기 탑승 비용을 지원받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에 게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를 내어 주고, 비용도 정부가 예비비로 지원하는 데 대해 ‘협차’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히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전용기를 탈 경우 별도의 검측, 사용후 뒤 정비와 점검 등 문제로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방미가 성사될 경우 여야 의원 수십명과 동행해 미국 의회와 교류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한미의원연맹’ 창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

법(IRA) 등 한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입법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사전 외교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김 의장은 지난 달 26일 국회 좌담회에서 “양국 기업 간 문제는 (양국 의회가) 미리 조율한다면 나중에 정부 간 갈등을 만들지 않고 사전에 잘 풀 수 있지 않겠나”며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의원단의 방미 계획이 순연되는 등 일정 이 바뀔 경우 전용기 탑승은 무산될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쪽에서 방미 의원단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관련 방침이 세워졌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국힘, ‘부모 찬스’ 고용세습 처벌 강화한다

### 노동개혁특위 공정채용 입법 추진

국민의힘이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2일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채용법’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 개혁의 후속 조치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에도 페이스 북에서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

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공정 채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불공정 채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정된 탓에 명백한 비리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특위는 향후 구체적인 불공정 채용 사례를 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채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

## 한덕수 총리 4~11일 6박 8일 유럽 4개국 방문

### 영국 찰스 3세 대관식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달 4~11일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한다고 총리실이 2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에서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경제안보, 첨단산업, 방위산업,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각국 정상급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

산 유치 지지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우선 6일(현지시간) 오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는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대관식 전날인 5일에는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비킹엄궁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한다.

총리실은 “한 총리는 대관식에 참석하는 영연방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7~8일 1박 2일간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한다.

한 총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윌프 크리스터 슨스웨덴 총리와 만나 한국전 참전국이자 중립국 감독위원회 위원국인 스웨덴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8~9일 1박 2일간은 오스트리아 빈을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오스트리아에서 네하머 총리와 면담하고 현지 경제인 간담회, 동포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9~10일에는 남동유럽 국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한다.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15주년을 기념해 루마니아 측이 한 총리를 초청했다.

한 총리는 니콜라에-이오일 치우케 총리와 회담하고 항만 인프라, 원전, 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사장님~ 아직도 모르세요?

# 중소기업 공제기금

**KBIZ**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교환 2번) | fund.kbiz.or.kr



☑ 단기운영자금 대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

☑ 비대면 원클릭 대출  
부금의 최대 1.5배 이내

☑ 노란우산 연계 대출  
최대 2천만원(연4.5%)

☑ 어음·수표 대출  
부금의 최대 7배 이내

홍보대사  
이용식